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굿에 대한 연구

- 영감놀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Jeju Island Exorcism

- focused on Young-Gam Nory -

제 출 자 : 한 승 희

지도교수 : 송 수 남

2002

무용학과

무용학전공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굿에 대한 연구

- 영감놀이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 11. 28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한 승 희

한승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심사일: 2002. 11. 28.

심사위원장 김정수 

심사위원 배주목 

심사위원 송수남 

단국대학교 대학원

( 국문 요약 )

## 제주도 굿에 대한 연구

- 영감놀이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한 승 희

지도교수 송 수 남

무속이란 문자 그대로 무당을 주축으로 민간에게 전승되는 종교 습속을 말한다. 한국 무속은 원시 상고시대로부터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끌어 온 원시 종교이며, 고대 종교로써 오늘날까지 잔류 계승된 토속 신앙중 하나이다. (류동식, 1975).

무속은 원시적 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종교로서의 모든 요소를 구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종교로서 민간 층에 뿌리깊이 파고들어 폭넓은 기반을 갖고 있으며 한민족의 원초적 신앙기반이고 민중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제주도의 영감놀이를 놀이라는 형식의 독특한 내용과 점차 관심이 미비해지는 지방의 무속을 알리고, 한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하고 제주도에 답사하여 마을 굿의 진행절차 및 구성을 연구하였으며 VTR등을 보며 분석하였다.

제주도의 영감놀이는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무당굿놀이의 하나로 신과 인간이 교섭하고 대화하는 형태의 연희적 의례이다.

이 놀이는 도깨비신이 여인을 범접하여 일어난 병을 치료하는 의례로 영감은 도깨비를 뜻하며 지역적 특성상 어선을 새로 지어 선왕을 모셔 앉힐 경우에도 행해진다. 이 놀이는 춤사위가 거의 없으며 연극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놀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영감놀이라는 독특한 형식과 내용, 그에 따른 풍자성을 연구하고 도깨비에 대한 곳으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놀이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 방법 .....	2
II. 이론적 배경 .....	4
1. 곳의 개념 .....	4
2. 마을 곳(춤)의 개념 .....	6
3. 제주도의 전통문화 .....	7
4. 제주도의 곳 .....	9
III. 제주도 영감놀이의 고찰 .....	15
1. 영감놀이의 역사 및 유래 .....	15
2. 영감놀이의 구성 및 연희과정 .....	16
1) 초감제	
2) 영감청함	
3) 막푸다시	
4) 도진(배방선)	
3. 영감놀이의 풍자성 .....	20
4. 영감놀이 춤 .....	22
5. 영감놀이 춤의 가사 .....	27

IV. 제주도 영감놀이 춤의 전승과 특성화 방안 .....	30
V. 결 론 .....	33
참고문헌 .....	35
표 목 차 .....	37
부 록 .....	38
Abstract .....	41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한 민족의 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전통예술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의 춤은 세계의 춤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가 독특한 예술로서 세계인들에게 소개되고 인정되기 때문이다(원필녀, 1991).

민속은 서민사회의 생활이고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표현이며 한 시대를 사는 많은 민중의 생활 그 자체이다.

특히 무속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근저를 이루며 전통문화 속에 깊게 뿌리 내려 왔고 관습, 사회생활, 양식, 문화, 무용예술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쳐왔으며 한국인의 정신적, 육체적, 공동체적 신명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급속한 시대 변화의 삶에 살아있는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인간생활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정신적 귀의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무속 신앙은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나약함을 그대로 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속은 일반적 종교와는 달리 현세적 종교관에서 출발하고 무속은 직접적인 신의 부름과 기원에 대한 응답이다. 이는 그 기본절차를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신을 청하고, 즐겁게 하며 신을 보내는 그 절차 이면에 신과 인간의 만남을 주선, 춤과 노래로 화합하여 복을 빌고 대답을 들은 후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대동제적 성격의 난장(亂場)을 형성한다(문영현, 1995).

물론 일부 사람들에 의해 미신으로 치부 당하면서 신관자체가 많이 훼손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민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원초적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종교의 한 형태 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굿은 무속 연희로서 그 성격상 개개인의 소산물이 아닌, 민족 생활예술의 일부분으로 전승되어 온 생활 예술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전통의 아름다운 춤들을 발굴하여 발전 시켜야 할 과제를 갖아야 한다. 굿은 춤을 추는 사람과 관람자가 춤을 통해서 대화를 이루며 삶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 육체적 심리적 고뇌를 덜어 줄뿐만 아니라, 신명을 도출해 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는 제주도의 영감놀이를 주제로 설정하였다.

영감놀이는 도깨비에 대한 굿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 지방의 놀이로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이 놀이는 아직 춤의 보급을 위한 조직체가 부족하고 영감놀이의 기초와 토대가 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나 놀이 속에서 춤을 찾아내어 연구하는 데는 민속학적인 면에서는 물론 무용학술연구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감놀이의 놀이라는 형식의 독특한 내용과 그에 따른 풍자성, 또한 춤으로 본 영감놀이를 연구해 봄으로써 영감놀이 춤의 전승과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굿의 하나인 영감 놀이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같

은 과정으로 하였다.

우선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굿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마을 굿(춤)의 개념,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탐색해보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굿을 다루었다.

3장에서는 제주도 영감놀이 춤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영감놀이의 역사 및 유래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감놀이의 구성과 연희과정, 풍자성, 춤, 가사 등을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영감놀이 춤의 전승에 있어서 제약점등을 살펴보고 나서 제주도 지방의 독자성을 띤 무속예술로 영감놀이가 올바르게 전승, 보존되기 위한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마을 춤의 개념, 제주도 지방의 전통문화, 제주도의 굿에 관해서 주로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각종 일간지 등도 함께 참조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제주도의 영감놀이라는 굿에 대한 연구는 현장 답사하여 제주도내의 민속 박물관과 교육 박물관 등에 있는 문헌과 사진, 비디오 등을 참고 연구하였으며, 직접 전수 받은 전수자 및 제주의 도민들 중 고령자들의 실제 경험이나 증언을 참고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굿의 개념

굿에 관한 첫 기록은 <삼국유사> <제2남해왕(第二南解王)조>에서 볼 수 있는데, 남해왕은 차차웅(次次雄)이라고 불렸고, 이는 방언으로 무당의 뜻이라고 적혀 있다. 가장 무속적인 의례는 신라 진흥왕 때 시작된 팔관회로서 이는 곧 나라굿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규모로 거행된 이 행사는 토속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으로 축제의 성격을 지녔으며, 국선(國仙)이라는 일종의 나라무당이 주관하면서 고려 때까지 이어졌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굿은 지배층에서 밀려나 서민들의 종교로 정착하였다. 굿은 무당이 노래와 춤으로써 무아(無我)의 경지에 돌입하여 탈혼(脫魂)의 과정을 거쳐 신과 접촉하고 거기에서 신탁을 통하여 길흉화복(吉凶禍福)등의 인간의 운명을 조달해 달라고 비는 제의(祭儀)이며, 가무가 수반되는 큰 규모의 제의로서 신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굿, 천신굿, 진오기굿, 용신굿, 성주받이굿, 병굿, 도당굿, 여담굿등 매우 많은 종류의 다양한 굿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굿을 거의 볼 수가 없고 개인을 위한 굿들만 행하여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라굿은 왕조시대에 왕가의 요청에 의해 행해지던 굿으로 지금은 사라졌다. 천신굿은 새로 추수한 곡식을 신령에게 바치며 집안의 평온을 기원하는 굿으로 평민들의 경우엔 채수굿이라고 부른다.

진오기굿은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 저승에 편히 가도록 하는 의례이고,

용신굿은 주로 강이나 바다 등 물가에서 물의 신령인 용신을 위하여 행하는 굿이며, 병굿은 식구 중에 병이 난 사람이 있을 경우 하는 굿으로 천연두를 물리치기 위한 마마배송굿이 유명하다고 한다.

도당굿은 대표적인 마을굿으로 특히 중부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굿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소수의 특별한 굿들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전승되고 있다. 굿은 다양한 종류와 무당의 각기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굿의 기본구조는 동일하여 청신(淸神), 오신(娛神), 송신(送神)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청신이란 부정을 물리고 신을 청하는 부분이고, 오신은 인간의 소원을 아뢰고 대답을 들으며 놀이로써 함께 즐기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신은 신을 본래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과정이다.

굿은 초청된 신들을 돌려보내는 송신과정 등으로 짜여져 있어, 모든 과정에 천지인에 해당하는 삼신신앙이 내포되어 있으며 화려한 신복과 구성진 사설, 흥미와 감동을 일으키는 신화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나라 북쪽지방에서는 신(神)이 내려 무당이 된 강신무(降神巫)와, 남쪽지방에서는 무당 일을 물려받아 무당이 된 세습무(世襲巫)가 있는데, 강신무는 신격 자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지니다가도 발작적 춤으로 변하면 유동적 변화가 심하다. 그러나 세습무는 일반적인 가무로서 축원적 성격이 담겨 있고 좀 더 인간적인 춤, 예술적 연희에 치중된다.

신에 대하여 인간은 열등하고 종속된다는 표피적인 결론에서 탈피하여 인간은 결코 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고를 보여 준다.

평소에는 인간끼리 살아 가다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비로소 신을 생각하여 굿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이 오면 술과 음식으로 신의 기분을 돋운 뒤 소원을 말하고 신이 청을 들어주면 지

체 없이 신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보내게 된다.

이처럼 곳은 우리 민중들의 생활 모습 이었으며 생동적 감동을 주고 예술적 자극을 주는, 한마디로 종합예술의 백미가 우리 한국의 곳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2. 마을굿(춤)의 개념

마을이란 동네, 부락, 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국도를 이용했을 때 걸어서 한 두 시간 걸리는 범위내의 공동생활권을 말하고 있다(김경주, 1993).

마을춤은 주술적 종교의식으로부터 비롯되어 부여의 영고, 예의무천, 고구려의 동맹, 마한의 춘추제 때와 같은 부족국가시대에 농경생활과 밀접히 행해졌고 대표적 대동축제 놀이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고시대의 마을굿은 남녀노소 모두 더불어 꼭 춤만의 요소가 아닌 각종 놀이와 노래, 연극 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마을춤의 동의어는 대동춤, 놀이춤, 우리춤, 두레춤, 동네춤, 서민춤, 대중춤 등이 있는데(정병호, 1992), 공동생활권내의 주민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을춤은 동질감, 동류의식, 공동체성, 제의성 등 서로의 결속과 화합을 표출해 낸다.

농경작업을 많이 하던 옛날에는 공동경작 과정 속에 작업능률을 올리고 지역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마을의 이익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을춤으로 대동춤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동체적 결속을 확인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농경작업에 있어 효율적으로 무난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함으로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거

나 끝날 때 마을 굿을 행하였는데 이는 마을의 무사와 번영, 풍년을 비는 것으로 복을 맞이하는 의식이었다.

다시 말해서, 동질감등 공동체의 모든 결속과 화합을 다짐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신명을 몸짓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인 것이다.

또한, 마을 춤은 신명놀이만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만의 저항성도 찾아 볼 수 있다. 마을 춤이란 것이 여러 공동체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나 민족이 위협할 때는 그 참 맛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굿은 일제시대때 미신으로 규정되어 조직적인 탄압을 받았는데 조선혼을 말살하기위해 민속문화에 탄압을 가하였다. 이는 마을굿이라는 것이 마을민을 결속시키기는 공동체적 신명놀이일수도 있지만 나라와 지역을 지키려는 강한 저항성을 갖는 기능이 있기에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짓밟는 민족말살 정책을 행한 것이다. 마을 춤은 여러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라 그 힘도 크고 동작 또한 현란한 것이 아닌 단결할 수 있는 것 이여야 한다.

춤은 춤이되 가락과 노래와 연극적 요소, 놀이가 적당히 배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성이 강한 춤 이여야 한다.

### 3. 제주도의 전통문화

제주도는 한반도의 부속도로서 대륙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지리적인 여건상 중국, 일본 등의 남방도서의 영향도 많이 받아왔다.

이에 문화적으로도 북방, 남방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나지만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유입의 속도가 늦을 뿐 아니라

한번 유입된 문화는 오랫동안 그 원형을 유지해 온 예가 많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탐라(耽羅)라는 독자적인 지배체제가 유지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주 문화의 특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제주도의 전통문화는 제주도라는 한정된 특수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이 지역 특유의 토양과 역사와 더불어 세월을 거쳐 서서히 형성되어 왔고 제3기말로부터 제4기에 이르기까지 서른 번쯤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용암이 흘러넘치고 형성된 화산섬으로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바로 스며들어 바닷가에 이르러 솟아오른다. 때문에 음료수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바닷가에 있으며, 마을은 해안을 중심으로 고도200m 이하의 지대에 형성되었고 이들 지역을 ‘알뜨르’ 해안에서 떨어진 마을을 ‘웃뜨르’라 부른다. 이러한 환경에 논은 경작지의 50분의 1정도였으며, 제주도의 주식은 조와 보리였고 잡곡 이었다. 제주도는 환경이 짓궂고 모질어서 사람이 살아가기가 몹시 버거웠으며 목숨을 이어갈 생존 자체가 문제였다.

짓궂은 환경과 모진 역사는 전통문화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사시사철 목숨 바쳐 어기차게 일하는 습성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만으로 살아가는 굳건한 삶의 태도도, 삶을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실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모두 특수한 환경과 역사 때문이다.

제주도는 유달리 민간신앙이 뿌리 깊고, 굿을 치를 때 불리는 무속신앙인 본풀이는 그 종류도 엄청나며 이야기 줄거리가 질서정연하다.

마을 신앙인 경우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당굿과, 남성을 중심으로 한 포제가 확연히 구별된다. 굿판에서 무신들의 내력이 심방에 따라 읊어지게 되면, 굿판의 도민들은 자기 자신의 찌든 삶을 버림받고 기구한 신에게 투영하고 위안 받기도 하면서 도민들에게 흥겨운 예술적 체험도 동시에 치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주도의 도민들은 현실적 실질적 삶을 더욱 중시

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굳세게 이 섬을 지켜왔으며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삼다(三多)는 제주의 실정이고 대문, 도둑, 거지가 없는 삼무(三無)는 제주민의 이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환경에서 온 것인데 가까운 바다 밑에 온통 돌, 바위뿐인 섬이라 해녀 문화가 발달하고 태풍이 지나가는 골목이라 거센 바람이 자주 불었다.

지금의 제주도도 이러한 굵직한 환경들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춘하추동 사계절에 따라 빛깔이 다른 아름다움이 천태만상으로 옷을 갈아입는 섬이며 대평원처럼 확 펼쳐진 목장과 초원, 신비스러운 동굴들, 깎아지른 바닷가, 절벽과 바다로 맞닿는 장엄하게 쏟아지는 폭포수들 등 제주고유의 자연미는 제주를 환상과 낭만의 세계로 이끈다.

#### 4. 제주도의 곳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곳의 종류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곳에는 집을 새로 짓거나 잡귀를 쫓고 집안의 재복과 자손의 창성을 위해 비는 ‘성주풀이’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보내는 ‘시왕맞이’ 바다의 날씨가 잘 거들 수 있게 비는 ‘영등곳’ 집안의 자손 번창을 위해 비는 ‘불도맞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곳 종류를 간단히 보면 통과례, 생산의례, 계절의례, 치병의례, 예축의례, 건축의례에 따라 분류된다.

##### 1) 통과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과정을 사회에 인정하는 과정에 따라 인정하고 공동체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통과의례에 따른 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불도맞이

불도맞이는 기자의례(祈子儀禮)이다.

불도는 불교적 명칭으로서 산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불도맞이는 산신을 청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고, 단산, 무병 양육을 기원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현용준, 1985).

② 귀양풀이

귀양풀이는 장례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사자공양제로, 사자가 심방의 입을 빌어 심정을 말하는 “영개울림”을 한 후 차사에게 사자를 저승까지 고이 데려가 주도록 비는 것이다(현용준, 1980).

③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바다에서 익사하여 죽은 자의 무혼(撫魂)과 풍어(豐魚)를 비는 의례이다. 용왕은 바다의 신으로 무혼곳은 심방이 익사지의 혼 부르기를 하여 시체를 육지로 돌려보내 주도록 비는 것이며, 풍어곳은 요왕을 청하여 풍어를 비는 것이다(현용준, 1985).

④ 시왕맞이

시왕맞이는 사자공양제의 하나로서 사후 3년 이내에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승의 시완과 차사 등을 청하여 죽은 자의 왕생극락을 빌고, 죽

은 자의 심정을 듣는 “영개울림”을 하며 저승에서 길을 치워 닦아 죽은 자를 저승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의례이다(김태곤, 1991).

## 2) 생산의례

제주도민들은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 굿을 하였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에 관련된 문제들을 두고 경건한 의례를 준한다(현용준, 1985).

### ① 요왕맞이

바다신인 요왕에게 청하여 그 해의 풍어를 비는 의례이다. 이 의례는 제주도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 이어서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 ② 멩감풀이

농사대풍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신년 초에 가내의 평안과 행복을 비는 모든 농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 ③ 거무영청굿

백정집안에서 도살업의 번창을 위하여 행하는 의례이다.

### ④ 산신놀이

수렵의 풍요를 비는 의례로, 신방은 여러 신을 청하여 생업의 풍요를 빈 후, 수렵의 모의 행위를 극적으로 연출한다.

### 3) 계절의례

계절에 따라 행하여지는데, 종류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불돋제

신년 벽사초복, 화마(火魔)를 쫓아 버리는 의례이다.

특히 화재가 진압된 후에 행하는 의례로 화재의 발생으로부터 소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실연하고 냇이 이탈한 사람들의 냇들임 행사 등을 중심으로 한다.

#### ② 문전철갈이

신년 벽사초복을 위한 의례이다.

#### ③ 문전비념

신년 벽사초복을 위한 의례이다.

#### ④ 멩감

신년 벽사초복과 풍농을 위한 의례이다.

#### ⑤ 산신멩감

신년 벽사초복과 풍수를 위한 의례이다.

### 4) 치병의례

제주도 곳곳에서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① 녀들임

녀이 육체에서 빠져나감으로 해서 일어난 병을 치료하는 의례이다. 다시 녀을 들여 넣어 고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② 푸다시

잡귀가 범접하여 얻은 병을 치료하는 의례이다.

③ 영감놀이

도깨비신이 범접하여 일어난 병을 치료하는 의례로, 영감은 도깨비를 뜻한다. 이 의례는 어선을 새로 지어 선왕을 모셔 앉힐 경우나 부락 신에 대한 당 곳으로도 행해진다.

④ 두린굿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례로, 정신이상인 생긴 원영이나 신이 범접 때문이라 하여 굿을 하여 고친다.

⑤ 칠성새남

칠성이라는 뱀을 죽여 일어난 병을 고치기 위한 의례이다.

5) 예축의례

① 칠성제

이것은 충신이 칠성이 아니라 북두칠성원군을 위하는 의례로, 인간에게

장수와 복을 주는 신이라 하여, 칠성을 태운 사람, 즉 북두칠성의 수호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수복을 비는 의례이다.

## 6) 건축의례

### ① 성주풀이

집을 신축했을 때 하는 건축의례로, 건축에 쓰인 재목에 쓰인 나무 신을 쫓아내고 가택 신을 모셔 앉히는 의례이다(현용준, 1985).

제주도에서는 굿을 행하는 이를 무당이라 이르기도 하지만, 흔히 심방이라 부르는데 심방은 노래와 춤으로써 큰굿을 행하는 큰무당을 말하며 심방을 도와 악기를 치거나 간단한 비념 따위를 하는 무당을 소미라 이른다.

제주도 굿은 연극성 요소가 짙다고 했듯이, 시왕맛이의 ‘낙가시리놀림’에서는 시루떡을 공중에 던졌다 받고 하는 곡예스러운 사위도 있으며, 불도맛이에서는 아이 낳는 시늬, 산신제나 거무영청굿에서는 활발한 칼춤이 곁들여 지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추는 굿춤에는 서울굿춤과 달리 엇박으로 떼는 것이 드물고 한발 한발 발의놀림은 대개 규칙적이며, 전라도 굿춤처럼 잣게 엮는 발놀림이나 여러 박에 떼는 놀림도 드물다.

제주도는 손, 발을 앞뒤 또는 옆으로 짓는 사위가 많고 다른 고장보다 연극적(演劇的) 요소가 강한 만큼 춤에도 연극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 Ⅲ. 제주도 영감놀이춤

#### 1. 영감놀이의 역사 및 유래

영감놀이의 기원을 더듬을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현재로서는 영감놀이가 우리민족의 민속 신앙으로서 전승되어 왔음을 생각할 때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감놀이에서 영감은 도깨비를 의미하는데 제주방언에선 도채비라 한다. 예전의 우리 민중은 이를 도깨비불로 관념 또는 인격화된 남신으로 관념하기도 했다.

도깨비인 영감신에 대해서는 신화가 있는데 굿을 할 때 심방에 의해 불려지고, 영감놀이라는 신화의 실제적 근거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 굿에서 놀이는 신화에 관련된 내용 등을 연극적으로 노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경놀이, 영감놀이, 전상놀이 등이 있다. 영감놀이는 1971년 8월 26일 제주도 지정 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 놀이는 대개 영등굿 등에서 나오는 한 제차로 나오는데 당곳의 한 유형이면서 연극적인 점이 특이하기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또, 이 놀이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사라져버려 찾기 힘든 도깨비 신에 대한 연극적 제의가 제주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성이 평가되며 서민적 풍자와 해학이 음악과 노래, 대사, 연기, 춤으로 표현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영감놀이를 연극적 요소와 더불어 춤으로도 보고자 한다.

## 2. 영감놀이의 구성 및 연희과정

영감놀이는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무당굿 놀이의 하나로 신과 인간이 교섭하고 대화하는 식의 연희적 의례이다. 영감놀이의 연희는 영감들이 굿판에 등장해 심방과 대화를 하면서 시작되는데 같은 가면극으로써의 성격을 지니는 육지지방의 가면극과는 내용, 가면, 의상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제주도의 무속에서의 이 영감신에 대한 신화가 있는데, 이 신에 대해 알아보자. 이 신은 7형제로서 서울 먹자고을의 허정승의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은 성장하여 각 국내의 산을 차지하여 가는데 큰아들은 삼각산, 둘째는 백두산, 셋째는 금강산, 넷째는 계룡산, 다섯째는 태백산, 여섯째는 지리산, 일곱째 막내는 제주도 한라산을 각각 차지한다. 이 신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옷차림부터가 특이하다. 갓 양태만 붙은 흰 갓에, 깃만 붙은 흰 도포를 입고, 총만 붙은 떨어진 신발을 신으며 한 뺨도 못한 곰방대를 물고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신이라 할 수 있다. 점잖은 성품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고 각 처를 방랑하며 천리만리를 순식간에 돌아다닌다.

둘째, 과거에 아주 고급식품으로 쳤다는 돼지고기류나 수수범벅, 더운피, 소주 등을 동이로 즐겨 먹는다.

셋째, 이 신은 음산한 곳을 좋아하고 칙칙하고 안개 낀 날을 좋아하며, 해녀, 과부, 미녀를 좋아하여 범접해 병을 준다. 지금 이 놀이는 영감신이 미모를 탐해 병의 했기에 병을 앓는 경우나, 어선을 새로 짓고 선신인 신앙을 모셔 앉히려는 경우, 부락의 당굿 때에 한다.

즉 조상신, 선신, 당신으로 모신다. 그러나 지금은 병을 치료하는 굿으로 행해진다고 한다. 이 놀이를 할 때는 가면 두 개와 짚으로 만든 소형배가

필요하며, 가면이 없을 경우 창호지의 눈과 코, 입을 뚫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 놀이를 간단히 보면 초감제→ 영감청함→ 막푸다시→ 도진의 절차로 진행된다.

### 1) 초감제

긋하는 날짜, 장소, 연유를 신께 고하고 이어서 영감신을 청하는 절차이다.

### 2) 영감청함

수심방이 ‘영감’ ‘영감’ 하고 부르면 영감은 ‘어허허허’ 하며 등장하여 수심방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영감은 한라산을 구경하러 온 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왔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수심방은 당신 동생을 병의하여 앓고 있어 청한 것이니 동생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환자를 불러 앓힌다. 그럼 영감은 ‘동생이 여기 있구나 어서 가자’ 라고 말하고 가기 전에 실컷 먹고 놀고 즐기고 떠나자 하며 한창 놀게 된다. 이때 짚으로 만든 배를 들고 제물을 실어 춤을 추고 갈 준비를 하게 된다.

### 3) 막푸다시

수심방은 영감신을 배에 실어 내보내면 환자를 앓혀 푸다시를 하여 집안 마당 할 것 없이 사악한 것을 모두 쫓아내 버린다.



#### 4) 도진(배방선)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수심방은 소미들을 시켜 짚으로 만든 배를 들고 바다로가 영감신과 제주의 명산물을 사설을 하며 멀리 띄워 보내게 된다. 그럼 영감놀이는 끝이 난다.

위 내용을 樂舞로 보면 다음과 같다.

거 먼정 영감 참봉님 모여지면 일곱동서 허터지면 열너동서 가지각색으로 분해야 오던 영감 참봉님네가 요리저리 국이 구당하는 듯 하는구나 그리말고 어지시던 영감님네 어느 남도리 앞에 감은 족바리 없이나 하되 오장삼 못내 고여시나 하되 어진 조상님네 중감게 자부감개하니 영감참봉도신 모이자 < 입무가 여기까지 창하여 춤추어 가면 영감 가면을 쓰고 곰방대를 물어 이미 바깥에 나가 있던 소무 2인이 가까이 들어온다. >

입무: 영감! 영감!

영감: 허허 허허 (하며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입무: 영감! 영감!

영감: 허허 뭐요

입무: 영감이요?

영감: 참봉이요

입무: 참봉이요?

영감: 야체요

입무: 야체요? 먹다 남은 곳감이로고나 하하 영감

영감: 허허

입무: 어째서 여길 찾아왔소

영감: 허허

입무: 어째서 여길 찾아왔소, 글썄? 영감 어디서 왔소

영감: 우리는 팔도 강산 다 텅가지요

물이 들민 강변에 놀고 물이 싸민 수중에 놀고 산천마다 여곳마다  
이떡하민 천리가고 아뜩하민 만리가는 영감이지요 경상도 강원도  
백두산으로 두만강으로 평안도 압록강으로 대동강으로 평안도 담월  
산으로 …… 영감 영감 하는 소리가 나길레 조심 조심 찾아서 여  
길 왔지요 허허 그러니 우리를 찾았소?

입무: 하. 거. 바레고 기다리던 바이요

영감: 거 어째서요

입무: 영감 청한건 다름이 아니요 그 모든 신이라 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  
해여 가지고 -은 현씨 서른 다섯 알지요

영감: 알지요

입무: 그이가 영감덜을 청혀여서 그 영감의 의견과 영감의 하는 행동을  
모두 잘 알아가지고 이 신이 어떻다는 걸 알기 위하여 가지고 영  
감을 청한 바이요

영감: 허허 그래서

입무: 영감 찰려 놓은 건 없고 단독이나 영감을 청혀여서 영감의 하는 신  
령이라든지 그 모든 걸 한번 보지요

영감: 얼굴? 어디 어서?

입무: 한번 찾아나 보지요

영감: 어 알고 말고 어허허허 요거로고나게 어느 때에 이렇게 커서?

제주: 예 알다마다 뿐입니까

영감: 그렇지 알고말고 기영한다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청허여서 우리를  
위한다 하길레 조심조심 찾아왔는데 그 뭐 안주나 술이나 많이 찰  
려 냈소?

입무: 그거 그렇지요 뭇을 질 좋아하고 잘 먹고 질 반가와 저요?

입무: 영감 어찌 수전증이 많소?

영감: 허허허허 기영한다 우리 뒤에 하군줄덜 이서 절살여 숨은여 도랑여  
난여 든여 하군줄덜 얼어 벗어 굵은 하군줄덜 초잔은 청감주요 이  
챗잔은 자청주요 돌아닥아 한 한주 허허허허 많이 지냉기자. (술잔  
을 내던진다. 하나는 자빠지고 하나는 엎어지자)

입무: 거 못 먹었어요 (다시 술잔을 부어 영감에 준다. 영감이 다시 술잔  
을 던져 바로 자빠지니 술마심을 끝낸다)

영감: 이거 누구요 (구경꾼 여인을 가리키며)

입무: 열두 동세요

영감: 열두 동세? 그렇지 금채 옥채 야채 많이 먹고 많이 쓰자. 우리 한잔  
먹어시니 소리 좋은 살자구영 불랑국이영 허영 놀아보자.

입무: 거 영감이 좋아하는 걸로.

어어야 두야 두여두여 상상두여 아아야 어어어야

(서우젓 노래를 부르며 영감과 구경꾼까지 나와 한참 춤추며 논다)

### 3. 영감놀이의 풍자성

영감놀이에서 놀이는 놀리는 것이 주요한 요소로 되어있다. ‘놀리다’란 말  
은 ‘희롱하다’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희롱과 조롱은 풍자의 한 가지

제주이다. 영감놀이는 제주도의 서민 사회에서 이루어진 놀이이기 때문에 서민적인 풍자가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하다.

도깨비신은 영감 또는 참봉이라 하는 그 명칭부터가 풍자다. 영감은 정삼품과 종이품의 벼슬을 부르는 칭호인데 이 어마어마한 양반을 도깨비에다 비유해 놓고 있는 것이다.

정이품 이상의 벼슬은 대감이라 부른다. 이 영감신의 형제들이 팔도강산의 유명한 산과 그 일대를 차지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아버지는 허정승이라 되어있다. 허정승, 곧 허대감의 아들들이 모두 팔도강산을 차지하여 돌아다니며 주무르는 사회현실, 그것을 모두 도깨비가 하는 짓이라는 인식이 스며있다.

더구나 제주도의 최고 관원인 목사는 정삼품 벼슬이다. 제주도에 영감 이상의 벼슬이 없는 셈이다. 그러니 제주도에서 도깨비를 영감이라 부르는 것은 도내 최고의 양반이요, 관원인 제주 목사를 구체적으로 비유하여 풍자한 것이 된다. 영감놀이에서는 영감을 몰락양반의 행색, 그리고 수전증이 심한 추한 양반으로 익살스럽게 풍자하는데, 이 외에도 놀이 전체를 통하여 우스꽝스러운 도깨비神의 면모를 반영하면서 영감을 희화시키고 있다. 즉, 한 손에는 연불 한 손에는 신불을 들어 천리만리를 순식간에 날아다니며, 돼지고기나 수수범벅, 그리고 소주를 즐겨 먹고, 술이 취한 채로 해변, 산중 어디에나 돌아다니기 일쑤인데, 특히 비가 오려는 칙칙한 밤이나 안개 낀 음산한 날을 좋아해 잘 나타나고, 또 해녀나 과부 등 미녀를 좋아하여 같이 살자고 따라 붙어 병을 주거나 밤에 몰래 교방을 드나드는 행동 등이 그것이다.

즉, 인간에게 범접하여 병을 주는 역신성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도깨비 신성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게 되고, 또 도깨비神은 현실적인 양반으로 상징

되게 되는데, 이렇듯 역신이 곧 양반神으로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민중 공동의 체험에서 비롯된 민중 의식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며, 이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참고함으로써 성격의 변화와 민중 의식의 개입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영감, 즉 양반으로 상정된 것은, 일개 환자의 질병이 사회적 질병으로 확산되면서 역시 그 피해층도 민중일반으로 확산되었듯이, 환자에게 병을 준 양반은 이미 민중 공동의 적으로 설정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양반神이 도깨비의 성격을 아울러 수용함으로써 양반이 우스꽝스럽게 풍자화된 것은 곧 민중일반이 양반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의식의 차원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영감놀이에서는 역신이 영감 신으로 대체되는데, 영감은 즉 양반을 가리키는 것의 민중의 원한,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 콤플렉스가 양반을 역신의 성격에 투영시키게 한 것이다. 아울러 양반이 도깨비神과 동일시되는 것은 양반의 권위 상실을 의미하며, 양반의 권위부정은 민중의 동질성을 기초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영감구수 과정에서 제주의 명산물을 배에 가득 실어 띄어 보낸다는 것은 중앙관료 및 양반들에 의한 제주도민의 역사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민중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일단 모두 같이 춤추며 화합하는데, 이것은 양반에 대한 순응의 표현이 아니라, 개방적 포용성을 가지는 놀이의 속성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놀이의 속성으로 인해서 민중들은 그들 공동의 적과 공동의 생활선상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4. 영감놀이 춤

이 영감놀이는 굿을 할 때의 절차상 ‘영감을 청할 때’ 영감이라는 신이 영감가면을 쓰고 나와 시작된다. 심방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취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영감놀이 춤의 노래가 심방에 의해 불려지면서 특정한 춤사위가 없이 흔들흔들 거리며 퇴장하게 된다. 이 때의 영감들의 춤은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흥에 겨운 춤처럼 보인다. 흥혈흥혈 거리는 가사에 특별한 박자 없이 굿거리, 자진모리장단으로 노래가 불려지며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영감놀이 춤을 보면 굿의 절차 중 ‘영감을 청하는’ 부분에 영감이 등장하여 연희적 의례가 진행되는데, 이때 영감은 영감 가면을 쓰고 비틀거리며 등장하게 된다.

일곱 영감신이 특별한 장단이나 박자 없이 차례로 등장하여 곱방대를 물고, 어깨춤을 추며 한발 한발 걸어 나온다. 한명은 앉았다 일어나고, 한명은 제자리에서 율동을 하거나 뛰기도 한다.

심방과 영감과 대화의 끝이라면 영감놀이 춤의 노래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춘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심방은 영감놀이 가사를 흥혈거리며 부르는데 그것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고 곱방대를 들고 땅에 치기도 한다. 또 발은 천천히 걷거나 제자리에 서서 굴신만 해주기도 한다.

자진모리장단에 들어가면 좀 더 힘 있는 발동작과 (걷기, 뛰기), 손동작을 해준다.

이 영감놀이 춤(굿)에서는 영감이라는 신 자체가 놀기 좋아하고 부패한 양반으로 그려지듯 천천히 걷거나, 제자리 굴신 등과 같이 춤사위에서 또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영감놀이 춤사위는 어떤 기교를 보여주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모습 그대로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춤사위 또한 느긋하고 베짖있는 모습으로 행색이나 의상등도 초라하게 잘 나타내 옛날의 부패한 양반의 모습, 당시생활

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영감놀이 춤들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이 춤은 영감들이 각자 다른 동작을 흥에겨워 움직이며 움직임이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많은 동작이 없고, 인체, 평체, 걷기 등 기본적인 춤사위라 할 수 있다.

## 5. 영감놀이 춤의 가사

영감놀이 할 때 부르는 이 소리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민요의 한 유형이다.

이 소리를 서우젯 소리라 하는데 무의식에서 부르는 무가로 선율이 유연하고 경쾌하며 구성진 점으로 해서 민간에 전승되어 민요로 널리 퍼졌다.

본래 무속에서 부르는 노래로 영등굿 등의 굿이나 석살림 영감놀이의 절차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외치는 소리’라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우젯 소리라는 의미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소리의 가창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소리(메기고)+후렴(받는)의 기본형식으로 많이 불리워진다. 민족예술로서의 서우젯 소리의 특징은 제주도 지방에서 소리와 춤의 동시에 공연되는 순수 제주 민요가 서우젯 소리를 제외하고는 전무하고 또한 ‘춤소리’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새로이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제주도의 민속 I)

영감 놀이 춤을 출 때의 가사를 보면, <표 - 1>과 같다.

<표 - 1> 영감놀이 춤 가사

떼 김 소리	받 음 소리
어양 어양 어여차 소리로 놀고 가자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영감의 본초가 어디로며 영감서울이라 허정승이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아들이야 일곱성체의 시조가 어디로나 허터지민 열네동세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오잠삼은 뗏방거리에 어깨에다 질머나지고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진도나 안업 진도밭섬 별과장으로 들어온다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큰 관탈은 죽은관탈 소섬이라 진질작으로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할락산으로 올라사난 장군서낭 되었구나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요즈자 아덜은 나다가 오소리 잡놈이 되었구나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일곱차 아덜덜은 나다가 오소리 잡놈이 되었구나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망만불은 패랭이에 깃만불은 배포도에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혼뽀뽀 혼 곰방대에 치기만 불은 초신을 신고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놀던영감 놀고 가자 모친 간장을 다풀어주자	아- 어- 야- 어- 어- 어- 예- 요

이 노래는 특별한 박자가 있다기보다 굿거리와 자진모리 장단으로 이루어져 똑같은 음으로 흥얼거리는 느낌을 준다.

영감놀이 춤에서는 마지막으로 한판 실컷 놀고 가자고 하여 이 노래에 맞추어 짚으로 만든 배를 들고 춤을 추게 된다.

## IV. 제주도 영감놀이 춤의 전승과 특성화 방안

민속이라 함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대중적 풍속을 말하며 오랜 옛날부터 끊임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속예술은 그 내면이 변화되어 전승의 보존이나 전수 차원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전통 민속예술이기보다는 하나의 창작품 구실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미선, 2000).

마을 곳 역시 이 시대에 우리 문화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 바람직하게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곳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향토 예술로서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연희되었으며 정신적인 연대감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지역놀이들이 외래문명에 밀려 보존적 차원이기 보다는 오히려 변질되어 소멸해 가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 연희되고 있는 영감놀이 또한 점차 무관심과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 자연적 토대로 급격히 쇠퇴해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까닭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정신적 지주로서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던 민속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점차 근대화로 바뀌어 가면서 이러한 마을 곳들이 사라지고 외래의 문물만이 가치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기에 제주도의 영감놀이는 그 전통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수자들이 그리 많지 않으며, 영감놀이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수자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통일성을 이룬 올바른 전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제대로 갖춘 올바른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과 관계없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간간히 무대연희 되어 예전의 서민들이 같이 호흡하는 질퍽한 놀이마당이기 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

넷째, 영감놀이는 사회적 탐구가 부족하다. 전통 무속 예술로서 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제주도 지역 내에는 아직 조직적 홍보단이 없으며 따라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문제점등이 전승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 지방의 독특한 특색을 지닌 무속예술로 영감놀이가 올바르게 전승, 보존되기 위해서 특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도에 폭넓은 대중화를 위해 도민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전수관이나 정기적 놀이의 재현을 통해 알려야 한다.
2. 지역의 특징 있는 무속연희로서 그 형태의 변질을 막아야 하며 지역 내에서 전수자들의 통일성을 이룬 활동이 필요하다.
3. 교육적 차원에서 제주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주적 자부심을 갖고 놀이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홍보와 재연의 기회를 마련해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예술로 참다운 놀이 문화를 정착시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4. 지방의 행정당국이 마을 곳을 지역별로 지원하거나 조직적 홍보단을 결성 행사를 통해 영감놀이를 부흥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대중화를 위한 전문성을 띤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5. 영감놀이를 단지 곳의 일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핵심적 부분을 발췌하여 연극, 오페라, 마임극 등의 분야와 접목시켜 전수관이나 공연장에서 연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타 지역의 마을 춤과는 달리, 한 차원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6. 영감놀이의 놀이 유형이나 영감의 형상 등을 만들어 관광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제주도 영감놀이의 종합연희적인 성격을 통해 지역예술로서의 중요성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방안들은 단지 실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구되어 진다면 영감놀이가 현대인들에게 맞는 건전한 놀이 문화로 정착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마을 곳은 시대변천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지만 본래의 기능으로 되살려 우리의 소중한 민족문화 유산으로 계승, 발전 시켜야겠다.

## V. 결 론

마을 굿은 민족 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예능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민족문화의 단절기가 있었고 현재에는 외래문화에 밀려 마을 굿 본연의 전통적 원형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노미선, 2000).

따라서 본 논문은 제주도 영감놀이를 대상으로 그 독특한 형식과 내용, 현대적 계승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감놀이굿은 도깨비에 대한 굿으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굿으로 무속 의례 굿인 동시에 연희놀이이다. 도깨비신은 원래 “잘 먹으면 잘 먹은 값을 하고, 못 먹으면 못 먹은 값을 하는” 복신이지만 영감놀이에서의 영감(도깨비)은 망만 붙은 흰 갓을 쓰고, 깃만 붙은 베도포를 입고 항상 술에 취해 수전증에 걸려 달달 떠는 몰락한 양반이며 복을 가져다주는커녕 오히려 가난을 불러들일 것 같은 모습이다. 이 놀이는 영감신이 여인의 미모를 탐해 범접했기에 병을 앓는 경우나 큰굿의 조상놀림의 절차, 병 굿, 두린 굿, 추는 굿등의 막판에 조상을 놀리고 보내기 위해 행해진다. 이 놀이는 신을 달래어 쫓아버림으로서 병이 낫는다는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다. 영감놀이춤은 영감을 몰락한 양반으로 설정하여 환자에게 병을 준 양반은 이미 민중 공동의 적으로 인식 되게 된다.

그러므로 영감놀이춤은 외세를 축출함으로써 삶의 맺힘을 풀어내는 굿춤인 동시에 도민들의 겪어 온 것 들을 토대로 하여 창조해 낸 공동창작의 극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중요한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중화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제주도의 지역축제와의 연계성,  
둘째, 문화단체나 사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  
셋째, 제주도내에 영감놀이의 보다 폭넓은 대중화를 위해 각 지역의 전수  
관 건립,  
넷째, 영감놀이를 다른 예술 활동과 접목시켜 공연장에서 활동,  
다섯째, 영감의 우스꽝스러운 형상들과 같은 것을 관광 상품화,  
여섯째, 조직적이며 전문적인 홍보단 등의 결성을 통하여 대중화발전방향  
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놀이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마을 곳을 단순히 행사  
의 일환으로 춤과 기예를 자랑하거나 공연위주가 아닌 우리의 삶 속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무속 춤 본래의 기능을 오늘에 되살려 후손  
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우리 고유의 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고, 마을 춤에 대한 복원과 보존, 현대적 계승방안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  
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태곤(1991). **한국 민속 연구**. 서울 : 집문당.
- 노미선(2000). **마을굿(춤)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동식(1975). **韓國巫敎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 출판부
- 문무병(1984).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영현(1995). **한국무속 무용의 양상과 종교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원.
- 문화재관리국(1987). **무무**. 서울 : 문화재 연구소.
- 박현희(2000). **남원 삼동굿놀이 중 지네밧기의 현대적 계승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수남(1988). **한국무용사**. 금광출판.
- 원필녀(1991).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병호(1989). **무속예능의 지역적 기능과 특성**. 창론. 서울 : 중대예술연구회 연구소.
- 장수근(1990). **제주도 무속**. 서울 :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장수근, 이보형(1983). **제주도 영등굿**. 서울 : 열화당
- 제주도(1986). **제주도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 서울 :
- 제주도(1995). **제주도무형문화재**. 채보. 채록집

제주도(1993). **제주의 민속 I**

황루시(1988). **한국인의 곶과 마당**. 서울 : 문음사.

현용준(1985). **제주도 무속연구**. 서울 : 집문당.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서울 : 新丘文化社.

현용준, 이부영(1985). **제주도 무혼굿**. 서울 : 열화당.

## 표 목 차

1. <표 - 1>영감놀이 춤 가사 .....	24
---------------------------	----

( 부 록 )

## 영감놀이춤 연구에 관한 INTERVIEW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한승희입니다.

다음은 영감놀이 연구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면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소 개입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2.11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한승희 올림

면담자 : 이중춘

제주출생.

중요무형문화재 제 2호 영감놀이 보유자

**질문 1. 이 영감놀이는 언제부터 행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이 놀이는 굿과 시초를 같이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질문 2. 이 영감놀이 굿의 진행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니까?**

- 2~3시간정도 소요되지만 현재는 영감을 청하고 영감놀이 소리로 불러서 노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행해지고 있지는 않다.

**질문 3. 이 영감놀이 굿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영감신은 모두 일곱 신으로써 팔도명산을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그 중 막내아들이 제주도 한라산을 차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굿으로 행해 질 때에는 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한다.

**질문 4. 영감놀이 춤의 노래 가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이 노래는 무속에서 발췌된 것이며 선왕신 즉, 영감신의 노래이다. 현재 전문가에 의해 이 노래의 원형이 보존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들에 의해 불려지는데 이 노래의 소리는 비슷하게 진행된다.

**질문 5. 영감놀이 춤의 노래가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 ‘산’ ‘바다’를 중요시해서 쓰여 졌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심방들이 변화시켜 말할 수 있다.

**질문 6. 영감놀이 춤에는 특별한 동작이 있습니까?**

- 탈춤에서 비롯된 움직임 같다. 노래에 맞춰 일정한 형식 없이 흥에 겨워 추는 춤이다. (심방의 몸에 공수 되었을 때)

**질문 7. 현재도 이 놀이 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환자의 병 치료를 위해 개인의 집에서 간혹 이루어지고 있고 일 년에 한번 정월보름에 이루어지나 제대로 갖춘 형식으로 되어지고 있진 않다.

**질문 8.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수 활동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연구 자료로써 활발히 고찰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관광상품으로 인정되어 특정한 날에만 연희되어지고 있으며 지원정책이 부족해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Abstract)

A Study of the Jeju Island Exorcism  
- focused on Young-Gam Nory -

Han, Seung-Hee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Advisor : prof. Song, Soo-Nam

'Moosok' is a religious convention which i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y the people with a 'moodang'(shaman) as a main axis. Korean Moosok is a original religion that has leaded people's spirit from ancient times, and one of the folk belief that has inherited as a name of ancient religion.

Though Moosok maintained the form of a ancient religion, it had all factors as a religion and that's why it came to get close connections



with people. It is a basic religious foundation of Korean people, and it's an important data reflecting people's lif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form a unique form and story of 'Young-Gam Nory', as a local exorcism that is gradually taken less interest and to examine closely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the existing documentary records, I made a field investigation in 'Jejudo' to analyze the process and framework of a local tune performed during exorcism.

'Young-Gam Nory' is the unique remaining shaman tune in Jejudo, as a phantom exorcism, and it has a form of play ceremony the way spirit and human being meet together and communicate.

This play is ceremony curing disease and an old man means the specter. Because of the regional features, it appeared to be performed when new boat was made, and new leader was appointed. This play scarcely shows dancing performances, but contains lots of dramatic performances, so we could say it's a kind of play itself.

This paper makes a study of unique form and contents of 'Young-Gam Nory' and supposes to inform the only remaining play in Jejudo, Korea, about a specter exorcism.